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매년 12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안전수칙 위반'과 '사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지목됐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소방서 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 3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보급하기도 했다.

이 같이 연구실 사고에 온 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요즘, 탁월한 안전관리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충북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콜마파마(주)다. 콜마파마는 지난 2012년 2월 한국콜마(주)와 인수합병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3년 46.9%, 올해도 벌써 34.6%의 매출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빈틈 없는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콜마파마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공정별 안전관리 전담팀 구성해 안심일터 구현 콜마파마(주)

취재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

전 본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팀

10월 중순의 완연한 가을 날씨를 기대하며 콜마파마를 찾아갔던 날. 마침 이날은 새벽에 가을비가 한차례 쏟아진 후라 더욱 맑고 쾌청한 가을 공기를 뿜내는 듯 했다. 특히 콜마파마는 충북 제천의 바이오밸리에 자리하고 있어 더욱 차분하고 질서 있는 기업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실이 그렇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근로자들은 현장 내부 곳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콜마파마는 공장장의 지휘 아래 연구소, 품질본부, 생산본부 등 세 본부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는 다시 분석팀과 제제연구팀으로, 품질본부는 품질보증팀과 품질관리팀으로 나뉜다. 생산본부 역시 지원팀과 생산1·2팀, 시설팀으로 분화되는데, 이 다양한 본부 및 팀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이 바로 우리가 만나본 시설팀이다.

시설팀은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기계, 전기, 환경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 시설팀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수 대리는 현재의 제천공장 건축공사에 참여한 일명 오픈멤버로, 지금까지 약 7년간 근무하고 있다. 그는 긴급사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사내 체계가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요소에 맞춘 안전관리 시행

천연물 신약개발 및 한약제제 사업, 일반의약품 사업 분야에 주력하며 국제적인 수준의 생산대행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콜마파마지만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피할 수는 없다.

많은 제조업이 그렇듯 콜마파마 역시 다양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특히 분말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이 많은 탓에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 또 분진에 의한 화재나 폭발, 자동화 장비 등에 의한 상해의 우려가 있다.

관련 사례로 지난 7월 전남 순천의 한 연구소에서는 특수 처리하지 않고 유출된 화학약품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폭발한 바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특수화학 약품을 선불리 다루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고였다.

이런 콜마파마가 안전한 사업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데에는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팀의 역할이 크다.

사내에 구성된 시설팀은 기계설비나 기타 시설 등이 신규 도입될 경우, 사용 전에 안전, 보건 전 분야에 걸쳐 검토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콜마파마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업체에 발송한다. 이후 기업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재검토하고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발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의 사건, 사고 발생 시 사내 메일로 해당부서에 통보해 경각심을 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신 대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안전 감사가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실제 콜마파마는 지난 2010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총 32차례의 감사를 시행했다.



근로자의 안전, 가장 중요한 가치

안전현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콜마파마가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안전이다. 콜마파마는 자체 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마파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기(수시) 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0여 종의 안전보건환경 관리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환경도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다.

또 콜마파마는 근무형태를 고려한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화장치를 도입하고 근로자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최근 인력을 운반하던 공정에 자동리프터를 설치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콜마파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체 규정 및 각 본부에 맞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설팀의 조화로운 안전실천으로 안심일터를 구현하고 있다.

이날 청명했던 공기가 비단 비온 뒤 개인 가을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 분야, 모든 임직원이 건강하게 웃는 콜마파마의 내일 역시 분명 '맑음'일 것이라 기대해 본다. ☺



미니인터뷰



신동수 콜마파마(주) 시설팀 대리

안전, 기본만 준수해도 받은 지킨다

연구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형화된 공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사업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보호구는 착용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전관리자로서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저부터 바르게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며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연구실 내에서 직접 근무를 하지 않지만 모든 임직원을 위해 술선수범하여 안전을 지키는 이유는 안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보다 근로자 개개인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연구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 점은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안전관리자로서 앞으로 연구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연구실 무재해에 앞장서겠습니다.